

❖ 탐방 - 한민족세계화본부 權天文 총재(호장공파 33세)

# 天人合一 하늘의 법질서가 땅에도...

인증천지일 人中天地一  
 본 일신강종 진리 本 一神降衷 真理  
 천 성통광명 경천 天 性通光明 敬天  
 인 홍익인간 인화 人 弘益人間 人和  
 지 재세이화 감지 地 在 世 理 化 感 地  
 법 일의화행 신법 法 一 意 化 行 信 行



2017.11.15. 수요강좌를 마치고



1989년 감격의 백두산 산상기도



천부경 인장



상징



저서

이 법칙으로 한민족의 통일을 기원하고 장차 大東夷의 강역을 복원하는 PAX-KOREA를 설파하는 그의 열병은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거침이 없었다. 그는 경북 군위 출신으로 군위고교, 충신대, 인디애나신학교등을 거치고 군중으로 베트남전에 종군헌병이 있으며, 1989년 백두산 탐방과 구국기도를 올린 적도 있다. 또한 훗 노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하는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

우선 그의 한민족 통일의 길이라는 책자를 통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헌법개정에 있어 그의 소견은 '통일시대의 국가개조'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 통일시대의 국가개조란 무엇인지?

- 먼저 '국민중심의 글로벌 시대화'를 말하지요. 현재 규범과 도덕이 무너지고 법의 존엄이 훼손당하는 지금 21세기 통일시대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 1) 서문에 우리의 엄청난 세계적 컨텐츠인 '홍익인간' 이념을 넣어야지요.

- 2)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이제는 '직접민주주의'의 시대입니다. 대통령은 직선, 총리는 국회 간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 국민청원(개헌, 소환)의 활성화와 리, 동단위의 '국민주권회의'가 거의 직접민주정에 맞게 운영되어야겠지요.

- 3) 실제적 권력분립의 보장입니다. 합의제로 외교, 국방은 대통령, 행정부는 총리전권 책임제로 해야지요.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에서, 검찰총장은 검사회의에서 선출하고 공직자 정당 소속배제등이고,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한다는 겁니다. 경찰제도는 중앙경찰은 수사권 강화, 지방경찰은 대민봉사기능강화로 가야합니다.

- 4)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 정당은 정책연구의 산실로 하여야하고, 모든 공직자는 정당 소속을 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 5) '양원제 도입과 선거법 개정'은 인구 100만명당 1명의 상원의원 50명, 각 지역 풀뿌리 대표 50명으로 하며, 선거공보 이외에 선거운동 금지를 원칙으로 하여 돈없이도 제대로 된 인간이 의회로 진출하는 길을 보장해야 진정한 민의의 반영이 된다. 지금 10% 지지율의 정당이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민의의 왜곡이 얼마나 심한가요?

- 그리고 차점자 승계제도로 보결선거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합니다. 단, 정책연구진은 더 늘려서 보좌하도록 해야지요.

- 하원은 '국민주권회의'라 칭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북아 평화공존과 경제 연합이란 무엇인지요?  
 - 남쪽 5000만, 북쪽 2500만, 해외 7000만 합해 8200만 코리안이 '한민족문화공동체'를 결성하여, 세계최대 대체에너지 전

력생산국이 되면 세계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누릴 수 있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수직구조에서 수평구조로 가는 상생사회가 되도록 하여 자기풍, 초전도, 열역통화 등의 획기적 기술이 실용화되면 세계사의 주류에 들 수 있으며, 이는 코리안은 신명명의 진원지가 되어 '동방의 밝은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외에 굾직한 방안이 있으신거 같은데요?

- 국감산업, 대학교육 연계 정책, 만주와 연해주 진출, 정치개혁의 활성화, 종교개혁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방안이 있지요. 그래서 코리안의 복회, 여와, 치우의 나라를 재건하여 '민족 통일'의 풍악을 울리자는 것이지요.

간단히나마 그의 견해를 요약해본 것이고, 실제 강의는 양재동 소재 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15시~20시 까지 개최한다고 한다. 참고로 그의 연락처와 후원 계좌등은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한민족세계화본부 국민은행 396001-04-027550

서초구 양재천로 7길 17 석탄빌딩4층 HP 010-2210-8870

글 : 권오철

## 인연의 끈

權東煥(북아공파 36세) 前 워싱턴 권씨 종친회장 재미한국학교교수인턴 지역협의회 5대 이사장 한미애국총연합회 총재



서관에서 33년의 공무원 생활,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유명한 노버티스 제약사의 닥터라고 한다.

특히 유학시절엔 전 정원식 국무총리, 전 교육부 김영식 장관과 같은 룸메이트로 생활 했다고 한다.

90년대 까지만 해도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중앙종친회를 찾아 왔지만 요즘은 좀 뜸하고 이번 방문에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간다고 했다.

'항상 인간답게 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3대에 걸친 기독교 집안의 좌우명이라 한다. 조부가 천주교였으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부친 권병두 장로님은 이번 가집 발행 자료와 같이 삼분교회를 설립하는 등 기독교 발전에 공로가 크신 분이다.

모친 김월분여사는 625년 피난도 안가고 시부모를 모시고 종신하는 등 효부였고, 1988년 임종 시에 미국의 3남 동환이 학업으로 못 오는 걸 알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라고 유언하여 신앙의 어머니로서 고귀한 말씀을 남겼다.

<가집>은 규모가 있어 야하고 후손의 호응이

첫째 조건인 바 앞으로 봐가면서 자료를 더 수집하여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기로 하고, 대총회 사업국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난날 본 기자와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는 권국(權國) 前 뉴욕종친회장의 안부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반가웠다. 23일 경 한국을 떠나신다니 아깝기는 하지만 또 다시 만나 볼 수 있으리라 꼭 믿으면서 작별의 인사를 하였다.

앞으로 해외에 있는 족친들의 안부와 '가집' 제작에 있어 '물'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

그리고 부친 권병두 장로님이 만년에 즐겨 부르던 찬송가 한 구절을 적어 보며 그 아쉬움을 달래본다.

고생과 수고다 지나간 후광명향천국에편히실대  
 인애한 주모시고사는 것 영원히내 영광 되리모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님 뵈옵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 ■ 특별기고 <5>

# 이 시대에 '선비와 선비정신'이란 과연 무엇인가?

權仁浩(철학박사, 대진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동양철학)



기존의 대부분 '한국철학사'를 일별한다면 조선조 성리학에서는 이황을 비롯한 우물(牛粟; 우계 성훈과 울곡 이이)학파의 제자 사숙인(私淑人)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들은 주자 성리학만을 정통으로 인정하고 여타사상은 이단으로 비판하였다. 그들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시켜주는 현실사회가 가장 자연스러운 천리(天理)의 구현 상태 즉 '현실태'에 대해 '사회의 형이상학은 조화'라고 하며 누구도 비판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본다.

성리학이 가지는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의미는 일정한 사회적 여건, 즉 한국에서는 여말선초(麗末鮮初)에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역사 발전적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약 백백년이 지나가자 연산군과 중종시대 지나 중종 말년에서 명종 시대에 자체의 모순이 드러나는 15-16세기의 과도기를 거쳐 17세기 초인 인조반정(1623년)을 이후에는 유교경전인 사서(四書;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주자의 주석 이외의 새로운 해석을 하면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아 죽이기까지 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남았다.

고려 말의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 시호는 문정공(文靖公))은 상공관에서 성리학을 교육하며 유교의 도통관(道統觀)을 제시하였으며 고려에 절의를 지키다가 목살 당하였다. 조선 초기에 집필체(佔筆體)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은 사립파의 영수(領袖)로서 수양대군(세조)의 왕위찬탈과 왕이었던 노산군(단종)을 시해한 것을 비판 풍자하여 애도한 '조의제문(用義帝文)'으로 인하여 연산군의 무오사화 때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였다.

그런데 이황은 이색을 나옹선사(懶翁禪師, 1320-1376)비문을 찬(撰)한 것을 부도(浮屠; 불교)에 몰들었다고 하여 비판하였다. 나옹선사는 공민왕의 왕사(선각왕사 禪覺王師)로서 '청산(靑山)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명월(明月)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욕심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바람같이 구름같이 살다가 가라하네.'라는 시가 전한다.

이 비석(보물 제387호)은 경기도 양주 회암사(檜巖寺)에 있었는데, 비문은 이색이 짓고, 글씨는 권중화(權仲和, 호는 동고東阜, 1322-1408, 정당문학 동지공거, 문하찬성사, 삼사좌복야, 영암사사, 영의정 등을 역임)가 썼다. 그는 명나라에 2번을 사신으로 다녀왔고 이색의 처숙부로서, 평생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고 고사, 풍수, 의약, 천문 지리, 복서 등에 정통하여 왕과 백관의 사문에 응하였다. 예서와 전서에 능하여 개성의 광통보제선사비(廣通普濟禪師碑)의 전액(篆額)도 썼다. 시호는 문절공(文節公)이 쓴 것이다. 이 비석의 글씨는 예서체로서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와 증원고구려비 이후 고려 말에 와서 처음이다. 이는 당시에서 연 구와 권중화의 서예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유물이다.

또한 김종직에 대해서도 이황은 '김종직은 도학(道學; 정주 성리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평생의 사업이 오직 문장에 있을 뿐이었다. 그의 문집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혹평하였다. 허균과 장유, 윤증 등도 김종직을 비판 하였으나, 그 요지는 세조에게 신하노릇을 하여 형조판서까지 이르렀는데 도 왜 '조의제문' 같은 글을 지어 두 마 음을 품었는가? 하는 김종직의 출처(出處)에 대한 비판이었지 학문사상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립파를 부식(扶植)하여 훈척파의 전횡을 견제하여 문물전장과 제도를 정비한 현군인 성종은 친필로 '문장과 경계가 아울러 훌륭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조에서 정주 성리학만을 옹호하고 여타 학문사상을 이단사설로 배척하는데 앞장 선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되게나 우암이다. 그들이 하늘처럼 존송하는 주희도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도 해박하였고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사상과 그 논의 내용이 도불(道佛)의 영향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면, 이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 ■ 4자성어

# 言有三表

구양순체



## 言有三表

말에는 3가지 기준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의 의견을 표시하는 말을 할 때, 말이 갖추어야 할 3가지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온전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대동이 고구려의 장인 '목자'가 말에 대해 말했다.  
 "말에는 반드시 본받을 기준을 세워야 한다.  
 말에 기준이 없다는 것은 비유컨대 마치 돌담대 위에서 아침저녁을 가리

키는 것과 같아서 시비 이해를 분별할 수 없으니 올바른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말에는 반드시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세 가지 기준이 무엇인가? 뿌리(本)가 있어야 하고, 근원(原)이 있어야 하고, 실용(用)이 있어야 한다.  
 첫째, 과거 성왕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살피는 본(本)이다.  
 둘째, 일반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지 따져보는 원(原)이다.  
 셋째, 어떠한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지 따져보는 용(用)이다. 요즘 말로 하면 본은 근거, 원은 신뢰, 용은 실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말에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목자(墨子, 기원전 470?-391?)는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소주국 출신(지금 중국 산둥성 조장시 등주시)이고 원조상은 송나라, 그 전 선조는 동이족 고죽국 목태(墨胎)의 후손, 사상이자 철학자이다. 초기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 중 목가를 대표하는 위인이다. 핵심 사상은兼愛이고 《목자》에 전한다. 유교와 도교와 대립하였다.

행복한 결혼을 찾아주는  
**하나결혼정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상재리제세타 A동 1706호 (지하철 2호선 분당선 선릉역 ①번 출구)  
 소장 권경분  
 권문(權門)의 자녀 결혼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성심성의껏 우대하겠습니다.  
 ○ 상담전화 : (02)501-1177  
 ○ FAX : (02)508-5285  
 ○ H·P : 010-3203-3555  
 ○ 자택 : (031)794-0980  
 ○ E-mail : hm1003@hanmail.net

당뇨치료와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실크단백질"을 아시나요?**  
 ■ 인체에 필요한 18종 천연 아미노산 결정체  
 누에고치의 단백질을 매우 큰 고분자에서 분해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를 우리만의 기술을 이용해 쉽게 잘라내 만든 실크 펩타이드는 체내 흡수율 92% 이상의 천연 아미노산 결정체입니다.  
 ■ 세계 최대 규모의 실크 펩타이드 생산설비  
 월드웨이(주)는 실크 아미노산의 자체연구,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700톤의 실크 펩타이드를 생산하는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이며, 13년의 기술 노하우를 지닌 세계 단연 으뜸 기업입니다.  
 월드웨이(주) 영등포 사무소 | 권기영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2가 1-6, 상담문의 02)783-1577 010-2781-6041  
 100세 시대!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 단백질로 구성된 우리 몸!  
 실크단백질은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해주는 고순도 아미노산입니다.